

“수행자여 비즈니스맨이 되지 마라”

백찬홍 ‘씨알’ 홍보위원장 불교미래사회포럼서 ‘종교의 역할’ 강연

“신도에 없혀 고급승용차에 끌고 가고 성지순례를 명목으로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종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입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6월 23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제17차 불교미래사회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백찬홍 재단법인 ‘씨알’ 홍보위원장은 ‘신자유시대의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6월 23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열린 불교미래사회포럼 모습.

#한국 종교계는 거대화 열풍

백 위원장은 “극단적 이기심과 물질만능사상이 신자유주의 이념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오늘날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는 시기에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사회정서의 영향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도 미래가치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는 종교도 변질시켰다.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미국의 개신교는 영성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대 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메가 처치(Mega Church)라고 불리는 3000명 이상의 대형교회가 그 예이다. 메가 처치 목사들은 대기업CEO처럼 활동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목사기업가(Pastorpreneurs; 목사를 뜻하는 Pastor와 기업가를 뜻하는 Entrepreneur의 합성어)로 불린다.

백찬홍 위원장은 “메가 처치들은 청소년들이 운동과 데이트를 하고 중산층 부인들이 동료와 담소를 나누고 제중조절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목사기업가들은 설교, 기도 등 각종 종교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보다는 중산층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메가 처치는 한국에서 강남권 교회를 중심으로 응용돼 왔다.

백 위원장은 “순복음·금강교회 등 강복형 교회들이 ‘교회 다니면 부자된다’는 기복신앙과 신유·은사·방언을 강조한 것과 강남형 교

회들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구성된 신중산층의 욕망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강남형 교회들은 더 큰 아파트, 더 좋고 많은 자동차, 더 강력한 정치·사회적 권력, 더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등 자신의 힘을 빌려 계급을 재생산하고 또 다른 지배-피지배의 구조 즉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강남형 교회의 목회자들은 제왕적 리더십이 아닌 협동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리워렌 같은 목회자들을 모방해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메가 처치의 첫 모델로 알려진 은누리교회는 ‘SWOT’(강점·약점·기회·요인) 분석을 도입하고 세대별, 직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펼치는 등 마케팅기법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이다. 은누리교회는 홍보도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드는 등 기업의 광고처럼 제작했다. 교회인은 백화점 문화센터와 유사하게 꾸며 교회를 ‘거룩하고 엄숙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생활 공간화시켰다.

백 위원장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친미·보수적인 것은 미국국교회를 모방하면서 성장했기 때

문이다. ‘교인들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요’ ‘교인들의 비전은 곧 교회의 비전’이라는 성공 이데올로기 확산이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내각을 탄생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불교계에서도 일부 사람이 대형교회 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주변의 군소사찰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톨릭도 최근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대 성당을 짓고 성당운영에 강남형 교회모형을 벤치마킹해 ‘건축현금’에 시달린 신자들이 성당을 떠나고, 일부 신부들은 교구장을 찾아가 성당 건설 채무를 망감해 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성과 수행정신 회복이 살 길

백찬홍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에 휩쓸린 예가 이명박 정권의 탄생이다”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대선에서 500만표 차이로 압승한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부른 747공약(7%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세계강국)의 실상은 과거지향적”이라며 “선진화는 레이건과 대처 시대의 민영화 정책

이었고, 747에는 선진국가가 지향

하는 보편적 복지와 분배는 없고 오로지 성장만이 살길이고 그 대답은 기업에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종교계도 이명박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신중산층과 특권층 흡수에 나서고 있다”면서 “종교의 중산층화는 종교의 기본적인 자기절제, 성찰, 청빈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한다.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사회적 실천에는 소극적이 되는 단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인들이 사찰, 성당, 교회를 키우는데 몰두한 나머지 시주·헌금을 많이 내는 신자,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기득권 세력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백 위원장은 “종교가 특권화되는 것은 그만큼 대안적인 공동체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조직이 아닌 특정계층의 사교모임으로 전락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종교가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종교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의 의미를 살리고 영성과 수행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법정 스님에 대한 추모열기가 어느 종교인보다

뜨거웠던 것은 스님이 진정한 성직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도 6·2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6·2지방선거에서 민주세력이 승리한 것은 불교환경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인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종교가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정권을 심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종교계가 대중에게 신뢰 받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지금보다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해답은 불교에...

신자유주의는 최근 금융위기를 통해 흔들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은 사회와 자신에의 성찰로 이어졌고, 이는 출판계에서 자기계발서의 거품이 꺼지고 인문학 도서 판매 증가로 나타났다.

백찬홍 위원장은 “세계를 하나의 가치를 통합하려는 유일신 신앙이 세계화를 촉발시켰고 신자유주의로 이어졌다”면서 “개인교는 대안이 되기 쉽지 않다. 자신과 사회에의 성찰이 주목받는 때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에 그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순환적 윤회사상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펼치는 불교야 말고 ‘날 것야생’의 사고를 간직한 유일한 현대 종교이다. 생명·평화·공존을 강조하는 불교의 근본사상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국가와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야만의 시대에 답할 수 있는 가장 대안적인 종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법인 ‘씨알’ 이사장 김원호는 함석헌·유영모 선생의 정신과 철학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운동과 정신운동을 부흥하고자 2006년 설립돼 교육·문화·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100자 뉴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4대강 사업 중단 단식 돌입

공주 마곡사 등 종교계와 충청·전북 지역 6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공동대표 혜우)은 6월 24일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불교 개신교 카톨릭 등 4대 종교, 정당,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자회견문에서 “4대강 사업은 6·2지방선거에서 반대 표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문수 스님마저 소신공양으로 내몰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단식은 금강선원에 설치된 단식장에서 1일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1차로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4대강 사업 중단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생명나눔 대구본부 박창근씨 등 홍보대사 위촉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본부는 6월 22일 대구불교방송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명 대구본부장은 가수 박창근씨와 보현설계사 최원숙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부인 장기기증의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순국선열 합동 위령제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법전사는 6월 24일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광장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전몰군경 무명용사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총회와 관보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 겨레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호국불교를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돼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력을 세워 위기를 극복해 왔다”면서 “오늘 이 법회를 통해 애국애족의 정신을 후손에게까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부대중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대원불교조계종 불광사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경남 양산의 (사대승교단 대원불교 조계종 불광사(주지 청봉)는 6월 20일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중정 석가산 스님, 총무원장 능인 스님, 세계불교승가회 각국 대표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대통령궁이 관리하는 사찰에서 보관하던 부처님 진신사리이다. 사리는 18일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대법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국무총리(Mr. Dinesh Gunawardhana)가 석가산 스님에게 전달하고, 스님은 다시 청봉 스님에게 기증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미얀마문화원 미얀마 외무부장관 방문해

미얀마 연방정부 우 난 위인 외무부 장관은 6월 8일 종로구 청진동 소재 미얀마 문화원을 방문했다.

우 난 위인 장관은 미얀마 문화원장 목탁 스님(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얀마 문화원을 이끌고 미얀마불교에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미얀마문화원이 앞으로도 미얀마를 한국에 바르게 알리는 교두보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날 우 난 위인 장관의 방문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미얀마 양곤 빈민가 등에 우물파주기 운동을 진행한데 대한 감사 방문이다. 목탁 스님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앞으로 30 여기의 우물을 더 미얀마에 제공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감사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6월 1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국제전수금강보살계대법회에 동참해주신 세계 불교 승가회 세계각국 대표 고승대덕 및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한국고승대덕 큰스님, 그리고 스리랑카 장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오신 외국인도분들과 국내 사부대중 여러분께 본 대법회가 성황리 속에서 회향 하게 된 것을 봉행위원장 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법회를 통하여 본 대각교단에서는 앞으로 세계불교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며 오는 2016년도 세계불교문화엑스포를 대한민국 유치를 기원하기 위하여 세계불교 각국 지도자들을 모신가운데 세계불교승가회 사무총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신 한국불교계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대선사의 업적을 높이 찬탄하면서 그 성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응화세존 3037년 남전열반 2554년 6월 25일

대각교단 국제전수금강보살계대법회 봉행위원 일동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석능인화남

대만공승회 승찬공양대법회에 동참하실 큰스님들께

대각교단에서 오는 8월29일 대만공승회에서 주최하는 승찬공양대법에 참가할 한국대표단을 모집 합니다 매년 대만에서 외국 큰스님들을 초빙하여 성대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동참하는 공덕 으로 무상보리심을 증장시키는 대법회에 모시고자 하오니 주저마시고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각교단 성지순례단 단장 석능인 화남

대만 공승회 승찬공양대법회 한국 참가단 모집	
참 가 대 상	각 종단 큰스님 및 신도
참 가 인 원	선착순 100명
행 사 기 간	8월26일~30일 (승찬 공양법회는 8월29일 행사)
행 사 경 비	890,000원 (개인경비 제외한 일체 포함)
모 집 마 감	7월 10일까지
예 약 처	(주) 코스모스여행사, 대각교단 (010-3900-3050) 전화 : 053-427-7500, 팩스 : 053-421-4993
예 약 방법	(주)코스모스여행사에 전화로 예약 후 여권사본을 팩스 053-421-4993 으로 보내주세요
예 약 금	예약금 100,000원을 아래구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구좌번호 : 농협 301-0056-1262-01 대각교단 잔금은 8월 10일까지 완납하시면 됩니다
행 사 주 관	대각교단 해외성지순례단 / 010-3900-3050
행 사 문 의	(주) 코스모스여행사 / 김 태 희 / 010-3823-7510, 053-427-7500